경제혁신 3개년 계획 | 대한민국 제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12월 13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 방송. 통신 12월 12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12. 12(월)	담당부서	통상협력총괄과
담당과장	김기준 과장 (044-203-5680)	담 당 자	김현진 사무관(044-203-5682)

제3차 「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」 개최

- 우리기업의 중앙아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-
- 프로젝트 수주, 에너지신산업 진출 등 협력 다변화 모색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주형환)는 '16.12.12(월) 그랜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년도 중앙아시아 진출성과를 공유·확산하기 위하여 제3차 「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」를 개최함

○ 동 위원회는 중앙아시아 진출 활성화 목적으로 산업부,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중앙아시아 진출 주요 기업이 해당 지역의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 위하여 '14.6월 구성됨

< 제3차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요 >

◈ 일시/장소: 12.12(월) 16:00,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

◈ 참석: 산업부 통상협력국장,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본부장, 중앙아 진출 기업, 학계 전문가 등 총 70여명

□ 우리의 對중앙아시아 교역액은 저유가, 러시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'16.10월말 기준 17억불로 전년(22억불) 대비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,

○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는 에너지의존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산업다변화와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* 중이며 에너지 가격 회복시에는 수출, 프로젝트 발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한 시장임

* (카자흐) 산업다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'누를리 졸(新경제정책) 발표('15.11)
(우즈벡) '15-'19년 산업구조개혁·현대화·생산다변화 계획 발표'('15.3)
(투르크) '12-'16 사회경제 발전계획'으로 고부가가치 가스화학산업 육성 계획

□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개회사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현대화와 다각화를 추진 중이므로 에너지·플랜트 등 프로젝트 외에 섬유, ICT,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사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,

○ 정부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구축되어 있는 경제공동위원회*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주지원, 기업 애로 해결 등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

* 우즈벡, 카자흐, 투르크메니스탄, 아제르 등과 장·차관급의 경제협력 채널 운영 중

□ 제3차 '민관 경제협력위'는 우즈벡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을 점검하는 한편, 향후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

○ **(우즈베키스탄)** MTO(Methanol To Olefins, 40억불), 타이하타쉬 발전소(500MW, 7억불)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과 더불어,

-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소(100MW, 1억불)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추가 프로젝트 수주 등을 위해 중점 협력

* 우즈벡은 '20년까지 사마르칸트 등에 100MW 태양광발전소 3기(10억불) 건설 계획

○ **(카자흐스탄)** 한-카 정상회담('16.11)에서 논의된 '한-EAEU FTA' 협상 개시, '석탄 건식 선별기술 활용사업' 등을 지속 협의하는 한편,

- '17년 아스타나 엑스포('17.6) 참관, 프로젝트 사절단 파견('17.1분기, 플랜트협회) 등을 통해 가스화학 등 프로젝트 수주 적극 전개

○ **(아제르바이잔)** 'Heydar Aliev 정유플랜트' 확장·현대화*, 노후 플랜트에 대한 기자재 공급방안을 지속 협의하고,

* 발주처 : SOCAR(아제르석유공사), 내용 : 설비용량 확대(600톤/연→750톤/연)

- 신재생에너지*,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진출도 강화

*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% 신재생에너지로 달성 계획

□ 위원회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, 신동에너콤 등이 우리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성공사례, '저유가 상황하에서 중앙아 진출방안' 대책 및 전문가 토론회 등도 병행하여 중앙아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

(첨부) 제3차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김기준 과장(☎ 044-203-5680), 김현진 사무관(☎ 044-203-56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제3차「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」개최 계획**

1. 행사 개요

□ (목적) 중앙아 주요 프로젝트 수주 지원,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하여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

* 우즈벡, 카자흐, 투르크 등과 장관급 경제공동위원회 운영 중

□ (일시) '16.12.12(월) 16:00

□ (장소) 그랜드 인터컨티넨털호텔(로즈룸)

□ (참석)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,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부회장, 중앙아 5개국 민관경협위원·진출기업 등 70여명

2. 프로그램

시 간	내 용	비 고
16:00～16:05	개회사	무역협회 본부장
16:05～16:10	인사말씀	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
16:10～16:20	'16년 對중앙아 경협성과 및 '17년 계획	무역협회
16:20～16:50	중앙아 지역 진출 성공사례	·현대엔지니어링 ·신동에너콤
16:50～17:10	저유가, 보호무역주의 상황下 對중앙아 경제협력 방향	국민대 이상준 교수
17:10～17:40	토론 : 중앙아 진출방안 (한양대 엄구호 교수, 외대 제성훈 교수 등)	참석자
17:40～17:50	질의 및 응답	
17:50~19:20	네트워킹 만찬	참석자 전원